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광주시와 전남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Elderly Social Activity and Depression on Elderly Well Being

김남현, 정민숙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hyeon Kim(nhyun8099@naver.com), Min-Suk Jung(welfarej@nambu.ac.kr)

요약

본 논문은 노인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또는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야만 우리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변인으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서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실천적 도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광주시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는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으면 우울이 감소되고 우울이 감소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우울의 심리상태를 극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대책이 시급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더욱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노인 | 삶의 질 | 사회활동 참여 | 우울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lderly well be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r life satisfaction. When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get better, Our society can be integrated as we pursuit. The research aimed to find out whether elderly social activity affect on their well being including meditating effect of elderly depression. The result will guide the practical implication in the field. For the analysi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elders from Gwangju City.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social activity showe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but positive effect on the elderly well being. When the higher elderly social activity level, lower depression as well as higher well being level. Thus, this study strongly proposes for construction of elderly social activity programs in a social welfare field to achieve their successful elderly life well being.

■ keyword : | Elder | Well-being | Social Activity Participants | Depression |

I. 서론

1. 서론

우리사회는 다양한 현상들에 맞물려 있는 가운데 노령화는 대표적인 사회의 이슈이다. 2017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50,976천명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156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4%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인구 구조상으로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분류하였다[1]. 한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미만인 나라는 유년 인구국, 4%이상 7%미만인 나라를 성년 인구국, 그리고 7%이상인 나라를 노년 인구국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년 인구국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권중돈(2007)은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즉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2].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인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보여준 노인 부양 및 보호문제,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저하 문제,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문제 등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3].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지려면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는 것으로 즉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성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맥락에서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노인 정책대책에 대한 연구와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써 개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사정, 결혼상태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4][5].

그중 사회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6][7]. 특히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참여하는 집단의 횡수에 따라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 반면 종교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우울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노인들의 우울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7],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보고도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변인으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을 소개하겠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인 삶의 질과 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매개변인인 우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조사대상, 연구모형, 연구도구,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분석결과에서는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정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의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적 제언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의 의미는 개인이 느끼

는 심리적 만족감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안정감, 친밀감으로 나타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나 객관적인 측정의 부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건강이 되고, 다음으로 물리적 요건, 마지막으로 인간의 궁극적 만족 목표로서,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10]. 또한 삶의 질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의 정도도 노인들에게는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도 하였다[11].

Clipp(2002)의 삶의 질은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의 다양한 안녕상태라고 정의하였고[12], Bowling(2003)은 개인의 가치, 경험, 건강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삶의 질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3]. OECD(1982)에서는 삶의 질을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정 등 8개 분야로 제시하였고[14], 이가옥(2000)은 건강, 물질적 복리, 경제활동, 가족관계, 주거, 교육, 여가활동 등 7개 영역으로 삶의 질을 지표로 제시하였다[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연구[16]에서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접근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었다. 첫 번째 접근으로는 종교적, 철학적 혹은 기타의 체계에 기반을 둔 규범적 이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 두 번째 접근은 선호의 충족에 기반을 두었고, 세 번째 접근은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김여진 · 홍환(2009)의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삶의 질 비교에서 전업 중고령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활동 정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 중고령 여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연구[16]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령, 혼인상태, 가

구소득, 일반화된 대인신뢰, 종교참여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에서 기혼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반화된 대인신뢰가 좋을수록, 종교에 참여하는 경우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장신재 · 조자영(2015)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참여만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상태만족은 노인일자리 참여만족과는 부분 매개가 있었다. 즉 경제상태의 만족은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8].

삶의 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왔다.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은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고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2. 사회 활동 참여

사회활동(social activity)과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의 주요변인으로 자주 혼용하는 개념들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하여 대부분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활동을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했다[19]. 사회활동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활동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하였다[20].

노년학의 활동이론에서는 사회참여를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aier & Klimb(2005)는 사회참여의 사회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이 타인과 함께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21]. 사회활동 참여는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에서 삶의 질, 사회적 · 경제적 안녕감 등에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22].

노인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활동의 횟수 및 종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owe & Kahn(1998)은 사회활동 참여를 성공적인 노화의 축으로 보았다[23].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크게 대외적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의 총칙으로 정의하였고, 작게는 이웃 방문, 종교활동, 야외운동, 자원봉사나 돈을 벌수 있는 생산활동 참여 등 자신의 생존과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24].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25][26]에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홍순혜(1984)연구에서도 사회활동 참여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지혜(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이 신체적인 능력이 허락하는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 스스로 정서와 삶의 만족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27][28].

Bull(1975)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와 자원봉사 활동 등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9],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가족관계를 강화시켜주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30].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에게 자기개방과 자아성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하였다[31].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후생활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적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자기생활에서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32].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노인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여가활동을 잘 해결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33]. 전명수(2014)의 연구에서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서 경제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 참여들이 삶의 만족을 높이고, 반면 자원봉사활동은 삶의 만족에 의미가 없었다[34]. 이처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문화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휴가활동으로써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현재의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무력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현심·남희수(2010)연구에서 종교모임의 빈도에 따라서 사회봉사 활동 빈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배진희(2009)연구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35] 또한 남기민·박현주(2010)연구에서도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즉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울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에 인류의 생존에 위협적인 질병요소 중 하나로 우울증을 뽑았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기질성 정신장애 중에서 우울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다[36]. 우울은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관리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37], 반면 우울을 방치하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38].

Kondo 외(2008)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결여는 우울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하였고[39], 국내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활동 정도 및 유형은 우울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40][41]. 강의숙·김근조(2000)는 우울을 개인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 감등을 나타내는 기분상태라고 정의하였다[42]. 노병일·모선희(2007)는 우울을 인간생활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특징을 지니는 마음상태라고 정의하였고[43], 김현숙·김병석(2007)은 노년기 우울은 노인에게서 기분의 저조함, 절망감, 근심, 의욕상실 등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수면장애, 식욕부진, 통증 등 신체적 증상과 함께 나타났다고 하였다[44].

윤진(1983)연구에서는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우울증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질병, 배우자의 사별, 실직, 은퇴, 경제적 여건 및 자녀와의 별거 등에서 오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해 자이존중

감 상실과 신체적 질병이나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보였다[45]. 우울이 심한 노인은 가벼운 노인인에 비해 지각된 건강수준이 낮으며 통제나 기능, 안녕 등이 저하되고, 낙천적인 노인이 비관적인 노인보다 더 오래 살며 우울한 노인들은 불안장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46]. 이은령 외(2013)는 사회활동 참여 중 종교생활에서 공적인 참여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개인적 참여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노인의 우울은 삶의 질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노년기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하였다[48]. 노년기 우울경향이 노인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의 약화를 초래하여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우울감을 낮추려는 노력은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49]. 윤정선(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우울감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7], 남기민·박현숙(2010)연구에서도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으로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8]. 또한 이 연구에서 우울이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에서 매개효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550부를 우편 발송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501부가 회수되어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485(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4개의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2. 우울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3.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4. 우울은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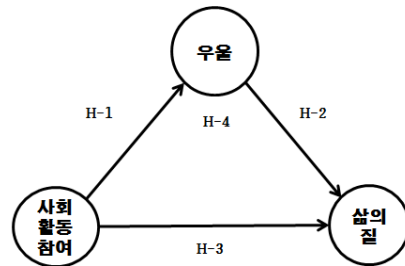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 도구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독립변수 :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는 박용두(2015)가 사용한 생산활동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51].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6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6으로 나타났다.

3.2 매개변수 :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 한국어판 척도를 윤정선(2014)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50].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6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우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1로 나타났다.

3.3 종속변수 :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Neugarten 외(1961)이 개발한 LSI-A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52],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3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삶의 질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4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분석,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Hair 외(2006)가 제시한, X^2 , CFI, TLI, SRMR 및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53].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은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 SRMR 및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이다[52].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평균

사회활동 참여는 5점 만점의 평균 값 3.0보다 조금 낮은 2.99(SD .84)점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 또한 평균 값 3.0보다 조금 낮은 2.87(SD .67)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평균 값 3.0보다 낮은 2.42점(.51)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평균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활동 참여	1	5	2.99	.84	-.126	-.419
우울	1	5	2.42	.67	.059	-.330
삶의 질	1	5	2.87	.51	.364	1.913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를 가졌다. 즉 사회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 또한 우울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변수	사회활동 참여	우울	삶의 질
사회활동 참여	1		
우울	-.314***	1	
삶의 질	.389***	-.380***	1

*** p<.001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X^2=33.902(p>.01)$ 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 값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200개 이상의 경우 그러하다[52]. 본 연구는 485개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값의 결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앞서 자료분석 방법에서 제시한 바대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적합도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모형지수는 GFI .971, NFI .953, TLI .977과 CFI .983으로 좋은 적합도 기준인 0.9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와 SRMR은 각각 .045, .028로 적합도 기준인 0.08이하로 나타나 권장사용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모델의 측정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료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념신뢰도 방법과 다른 하나는 개념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AVE)Q방법이 있다[55]. 개념 신뢰도 수준은 .07이상을 이상을 둘 수 있고, 평균분산추출(AVE)은 .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모델에서는 개념 신뢰도가 .7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이 .5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의 측정모델은 표본자료와 적합하다.

이상과 같이 모델의 적합도 평가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하며, 제시된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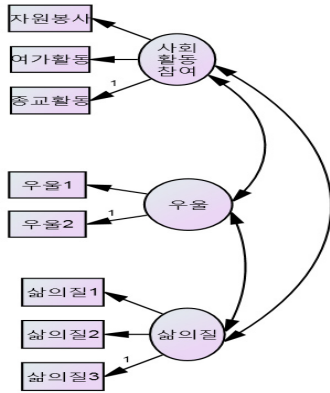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비교

	λ_e	표준화 λ	개념신뢰성	AVE
종교활동 <- 사회활동참여	1	0.53		
여가활동 <- 사회활동참여	1.451	0.698	0.741	0.496
자원봉사 <- 사회활동참여	2.072	0.849		
우울1 <- 우울	1	0.715	0.706	0.546
우울2 <- 우울	1.079	0.762		
삶질1 <- 삶의질	1	0.787		
삶질2 <- 삶의질	1.902	0.776	0.779	0.542
삶질3 <- 삶의질	0.284	0.636		
모형적합지수	$\chi^2=33.902$ $p=.009$ $GFI=.971$ $NFI=.953$ $TLI=.977$ $CFI=.983$ $RMSEA=.045$ $SRMR=.026$			

4. 구조모형 분석

4.1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삶의 질과의 관계 검증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직접적 영향($\beta=-.31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에도 직접적 영향($\beta=.300$, $p<.001$)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beta=-.28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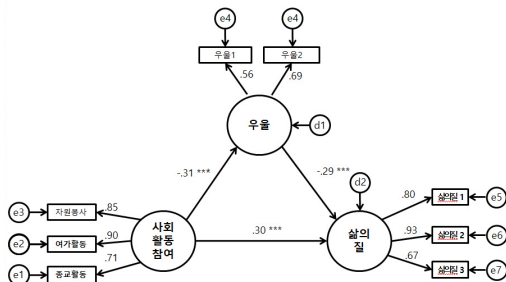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값

표 4.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비표준화	표준화		
사회활동 참여→우울	-.390	-.314	.090	-4.348***
사회활동 참여→삶의질	.424	.300	.094	4.511***
우울→삶의질	-.326	-.286	.074	-4.390***

** $p<.01$, *** $p<.001$

4.2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분석 및 연구모형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적 가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56].

분석 결과,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716이였으며, 신뢰구간은 .049~.161로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은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변수간의 직접간접효과 분해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총효과
사회활동 참여	우울	-.390***		-.390***
	삶의질	.424***	-.716** (.049~.161)	-.292**
우울		-.326***		-.326***

** $p<.01$, *** $p<.001$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구분	내 용	결과
가설 1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2	우울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3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4	우울은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들 변인들의 평균은 사회활동 참여의 평균 값 2.99점(SD .84)이고, 삶의 질 평균값은 2.87점(SD .67), 우울 평균값은 2.42점(.51)으로 모든 변인이 평균 값 3.0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beta = -.31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삶의 질에는 정적인 영향($\beta = .300$,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beta = -.28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은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가 $-.390$, 간접효과 $-.716$ 으로 총효과 $-.292$ 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생존과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자아정체감을 재확인하고 유지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한 여가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이므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 시 가족 간의 교류도 함께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으며 우울이 감소되고 우울이 감소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우울의 심리상태를 극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대책이 시급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더욱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 대상자들이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서 표본을 수집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구성에서 자원봉사, 종교 활동, 여가활동 등 일부 국한되어 사회활동 참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추후 사회활동 참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 활동을 유도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이 약 80세 시대에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울에 직면하고 있어 우울에 대한 다양한 척도 개발과 끊임없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또한 고령시대를 맞이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1] UN, The aging of popul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In aging in American's future*(22-29), 1976.
- [2] 권중돈,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7.
- [3] 이은희, 최신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9.

- [4] 한정란, 김수현,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Vol.26, pp.91-118, 2004.
- [5] 박광익, 한혜경,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Vol.11, pp.43-61, 2002.
- [6] 이현기,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써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연구, Vol.45, pp.317-346, 2009.
- [7] 이현심, 남희수, “농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Vol.17, No.4, pp.957-984, 2010.
- [8] 남기민, 박현주,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Vol.49, pp.405-428, 2010.
- [9] 최서규,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0]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한국판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간편형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Vol.39, Vol.3, pp.571-579, 2000.
- [11]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노인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12] E. C. Clipp, *Quality of life in The encyclopedia of aging, Maddox(Ed)*, New York: Springier Publishing Co. pp.851-854, 2002.
- [13] A. Bowling, “Let’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people aged 65 and over,”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cations, Newbury Park: Sdgc publications, 2003.
- [14] OECD, The OECD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 [15] 이가옥, “노년기 삶의 질 : 개념 및 지표구성,”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성공회대학교, 2000.
- [16] 한준,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 제19권, 제2호, pp.67-94, 2015.
- [17] 김여진, 홍환,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1, pp.93-110, 2009
- [18]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3, pp.123-132, 2015.
- [19] 한아름, 김여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3, pp.75-104, 2012.
- [20]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출판부, 2008.
- [21] H. Maier and P. L. Klumb, “Social participation and survival at olde ages,”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2, No.10, pp.29-31, 2005.
- [22]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Vol.20, No.3, pp.61-76, 2000.
- [23] J. Rowe and R. Kahn, “Successful aging,” 4erontologist, Vol.38, No.2, pp.433-440, 1998.
- [24] 윤종율, 제6회 고령사회포럼발표집, 한국노인과 학학술단 연합회, pp.3-33, 2005.
- [25] C. N. Bull,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No.1, pp.73-76, 1975.
- [26] M. Knapp,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31, No.5, pp.595-604, 1979.
- [27]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28] 강지애,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9] H. A. Tinsley, et al, “A system pf Classification Leisure Activities o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40, No.2, 1985.

- [30] L. Y. Steinitz, "Religiosity, Well-Being and Weltanschauung among the Elderly," *Journal for SSR*, Vol.19, No.1, pp.60-67, 1980.
- [31] 손동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성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2]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1995.
- [33] 김재중,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34] 전명수,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9, 2014.
- [35] 배진희, "고령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저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Vol.26, No.1, pp.353-368, 2009.
- [36] 정인파, 곽동일, 신동균, 이민수, 이현수, 김진영, "노인 우울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36, No.1, pp.103-112, 1997.
- [37] 이승환, 정영조, "노인우울증," *인제의학*, Vol.23, No.2, pp.379-385, 2002.
- [38] 김미혜, 이금룡, 정순동,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Vol.20, No.3, pp.211-226, 2000.
- [39] N. Kondo, M. Kazama, K. Suzuki, and Z. Yamagata, "Impact of mental health in daily living activities of Japanese elderly," *Preventive Medicine*, Vol.46, No.5, pp.457-462, 2008.
- [40] 박장근, 최덕목, 임란희, "노인 여가활동 유형과 고독감 및 우울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Vol.46, No.1, pp.577-588, 2007.
- [41] 이지연, 전정자,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의학과 논문집*, 제10권, 제1호, pp.29-40, 1994.
- [42] 강의숙, 김근조, "일부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련성," *대구보건협회학술지*, 제26권, 제4호, pp.451-459, 2000.
- [43] 노병일, 모선희, "사회적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7권, No.1, pp.53-69, 2007.
- [44] 김현순, 김병석,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Vol.19, No.3, pp.801-808, 2007.
- [45] 윤진,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인문과학*, 제50집, 1983.
- [46] J. Smith, "Optimism in Age Improve Quality of Life," *Aging Beings at 30*, 1998.
- [47] 이은령, 강지혁, 정재필, "노인 우울에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90-300, 2013.
- [48] 김귀분 외, "시설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음악 요법 효과," *노인가정학회지*, 제2권, pp.213-223, 1999.
- [49] 이영자, 김태현,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한국노년학*, 제19권, 제3호, pp.79-93, 1999.
- [50] 윤정선, *노인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51] 박용두, *노인의 생산 활동 및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52] B. L. Neugarten, R. J. Havighur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No.2, pp.134-143, 1961.
- [53] J. F. Hair, Jr., W. E. Black, B. J. Babin, and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2006.
- [54] M. W. Brown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 Sage, 2001
- [55] 배명렬,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2011.
- [56]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2010.

저 자 소 개

김 남 현(Nam-hyeo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광주대학교 행정학
과(학사)
- 2011년 2월 : 광주대학교 행정학
과(석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남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정 민 숙(Min-Suk Jung)

정회원



- 1976년 2월 : 조선대학교 물리학
과(이학사)
- 1998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
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
지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여성복지